

고령화·노동력 부족 '농업 지속가능성' 위협

2022년 농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과 대통령 선거 등 커다란 변수들이 작용해 큰 변화를 부추길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KREI 농정포커스에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경연은 농촌·농업의 대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선정했다.

농경연은 2022년 10대 농정이슈로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가장 먼저 꼽았다.

현장에서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선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는 농업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농업을 이끌 미래세대인 청년이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10대 농정이슈'

청년농업인 육성·외국인 근로자 등 정책 추진 CPTPP 가입 대응·새로운 농정전략 수립 주문

농경연은 2022년 10대 농정이슈로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가장 먼저 꼽았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다양한 승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계절근로자제도 확충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촌으로 내국인 임금근로

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응방안 마련'을 선정했다. 농경연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분야 추가개방을 우려했다.

개방폭 확대와 함께 CPTPP가 요구하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강화와 원산지 인정 확대도 농업계 우려를 키운다.

이에 농경연은 농업부문 영향 최소화와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과제로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전략 마련'이 주목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새 농정전략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미래상과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지닌 잠재력과 역할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지지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를 촉구했다.

네번째 과제로는 '국토균형발전과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채택했다. 지방소멸론에 대응하고 농촌 인적 자원 유입을 촉진

을 위한 농촌 생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귀농·귀촌 증가 등은 농촌의 잠재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촌 재생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적 직불제 확대'도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아직 기본직불금 위주고, 선택적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세부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게 농경연 분석이다. 농경연은 공익직불제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택적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적응과 농식품시스템 전반의 탄소 감축,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시스템 개선 ▲디지털 시대의 농산물 유통 혁신 ▲농촌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확산 등도 10대 이슈에 포함됐다. /황애란 기자

콘진원,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165억 투입

R&D 지원사업 첫 통합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165억 원 규모의 '2022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다년도 지정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65억 원 규모로 콘텐츠·관광·저작권·스포츠 등 총 4개 부문 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올해 신규 공모사

업은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 ▲관광 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인재 양성 및 경쟁력 강화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 등이며 사업비 95억 원이다.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사업은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이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물리적 제약 없이 가상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는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을

통해 관광사업의 첨단기술 융합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전통 관광기업(여행업, 숙박업, MICE업 등)과 관광벤처기업 등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 침체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보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저작권 분야 신규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로 60억원 규모 6개 과제를 공모한다. /황애란 기자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람코, 사우디전력공사, 아쿠아파워 등과 수소 생산 및 연료류 천연가스 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사장. /한전 제공

한전-사우디, 탄소중립 협력방안 논의

블루 수소·암모니아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등 연구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전력공사, 아쿠아파워 등과 수소 생산 및 연료류 천연가스 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정승일 사장은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해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전-아람코간 수소·암모니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블루 수소와 블루 암모니아 개발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의 상호협력에 의해 마련됐다. 또 투자, 생산, 운송, 저장, 판매까지의 전 주기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개발의 계

기 된다. 한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2030년까지 암모니아 발전으로 22.1테라와트시(TWh), 2050년까지 무탄소 가스발전으로 166.5~270TWh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 기준 암모니아와 수소가 각각 최대 1,300만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승일 사장은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블루 수소·암모니아의 생산과 공급 관련 잠재적 파트너십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전력연구원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가 공동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

지 효율 개선 등 신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사들 간 분야별 협력을 통해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탈탄소 정책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우디 내 운영 중인 발전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사우디는 2017년부터 신규 원전도입을 위한 입찰과정을 진행해 왔고 한전은 2018년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원전 기업들과 함께 예비사업자의 일원으로 선정됐다.

한전은 UAE 바라카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튀니지 원전도입을 구성해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에 역량을 총결집하고 사우디의 핵심 관심사항인 현지화율 제고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을 위해 현지 기업 실사를 수행하는 등 선제적인 입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스마트 온실 방송통신표준 3종 제정

전파연구원, 장치 호환성·교체 지원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 온실에서 활용되는 장치들의 상호호환성 확보와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온실 관련 국가표준 3종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정한 스마트온실 관련 국가표준은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RS485·모드버스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등이다.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표준은 스마트 온실의 센서와 구동기, 복합 노드의 일반 정보, 상태 정보, 제어 정보 등에 대한 표현방식의 통일성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해 준다. 서로 다른 장치간 상호연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노드

상태 정보와 제어 명령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적의 생육 알고리즘 도출 등을 위한 기반 정보로 활용이 가능한 표준이다.

또 RS485·모드버스 기반(장치 제어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직렬 통신 프로토콜 표준)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표준은, 스마트 온실에서 사용되는 장치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장비들의 손쉬운 교체를 지원해 기기 호환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스마트 온실통합제어기와 양액기 노드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은 스마트 온실을 위한 양액기 노드와 온실통합제어기 통신인터페이스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 다른 장치 간 상호연동을 제공한다. /황애란 기자

aT, 공공급식 운영 자금 융자

150억 규모...내달 4일까지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공급식 운영활성화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와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로컬푸드직매장 등이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연 3%(농업경영체 연 2.5%),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의 기업지원 메뉴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우편과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담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